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쉬어 가는 이야기

기이한 일입니다. 원고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전날 밤 작업을 편집부에 보내고, 몇 분께 손을 보라고 오늘 아침 파일을 열어보

낙산사가 불타다니
전날 밤의 취지를 기억을 더듬어 다시 '복원' 해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럴 때는 '새로' 쓰는 것이 쓰기도 흔쾌하고, 또 읽기도 부담없습니다.

기이한 일은 또 있었습니니다. 지난해 연재가 '원효가 낙산사에서 관음보살을 만난 이야기'인데, 원고를 송부한 다음날, 동해를 덮은 큰 화재로 낙산사가, 저런 불똥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행히 관음굴(觀音窟), 즉 홍련암은 무사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나마 안도했습니다.

이 비극에 그러나, 슬퍼할 일만은 아니다 싶습니다. 문화재청이 중건 불사를 전폭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대거 몰릴 것입니다. 저는 이 사

태를 전화위복의 새로운 전기로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들 낙산사와 동종을 '복원'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창조'의 관점으로 접근하기를 권합니다. 폐허를 폐허대로 두고, 동종은 또 녹은 대로 두고, 거기 새로운 가람과 전혀 다른 종을 달아매는 것이 어렵지 않지요.

어제 저녁 논설위원 모임에 참가하신 윤범모 교수님도, 일본의 호오류우지(法隆寺)가 어느 조사원의 실수로 불타는데, 그 불탄 흔적을 한 권에 그대로 모셔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폐허가 인간을 가르칩니다. 특히 불교는 그렇습니다.

삶의 무상과 유위(有爲)의 허망함을 일깨우기 위해, 겐지스 강가에서 죽은 시체의 더불어 자내는 부장관(不淨觀)을 뒤지 않습니다. 그 썩어가는 과정과 풍화해가는 모습인, 삶은 소우로부터 존재로 전회시키는 회향의 계기가 됩니다. 불교는 그래서, 다른 종교와는 달리, 폐허를 통해서 삶을 배우도록 가르칩니다.

불타버린 낙산사의 녹아내린 동종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입니까.

저녁 2차 찾침에서 만난 고려대장경연구소의 종립스님이 춘첩살인의 범문을 해 주셨습니다. "성주과공(成住壞空), 생겼다 무너지는 것, 그것이 불교지요!" 그렇지요. 고구에 정녕,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불타버린 폐허를 폐허대로 두기를 바랍니다. 제행무상(諸行無常), 불교의 눈으로 보면, 복원이란 어불성설의 개념입니다. 지금 지은 가람도 천년전 의상대사가 건립한 그 절이 아니라, 50년전

제 강의를 듣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템플스테이 계획을 말했다. 다들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가까운 청계사에 들려 짬을 안 내하고, 성령 스님에게 잠선 지도를 부탁했더니, 학생들은 곧은 다리로 가부좌를 하고, 무릎을 꿇리기 위해 호흡을 가다듬는 열성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은 자신이 기독교도이지만, 잠선이 기독교 교리에 반하지 않냐, 또 다른 형태의 예배라고 말 해주었고, 불기아에서 온 여학생은 자신

이니 그것을 인고로 지키라는 것도 수행이겠지만, 그 역지가 오히려 불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만 해도, 전혀 새로운 경험, 재가(在家)와 재사(在寺)의 새로운 연대이고, 실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한국문화의 얼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에서 월정사의 단기출가 프로그램 보고 가슴 깊이 울리고 짙은 기억이

내가 끄는 새 낙산사

저는 늘 불교가 너무 멀리 있다는 안타까움을 가져왔습니다. 절은 예배의 장소로만 있고, 스님들은 좌선과 인정에만 계셔도 무지 말을 붙이기 힘들었습니다. 법문을 듣자고 해도, 주말에 법회를 여는 것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들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불교가 살아있는 전통으로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몇 년 전 우연한 계기로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의 기획에 간여하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산사체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산사의 공간은 그 공간 자체만으로 엄청난 자원이다. 거기다 약간의 수행 프로그램만 보태면, 놀라운 저우의 효과를 대중들에게 선사할 것이다. 외국인들에게도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전통을 체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월드컵과 더불어 시작된 이 프로그램이 이후 정착이 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사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여기 동참하는 재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또한 커졌습니다.

이 새로운 운동을 깊이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성공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아울러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또한 열린 마음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요컨대 체(體)는 살피고, 용(用)은 고치는 것이 불교의 오랜 전통인 방편(方便) 정신 아닙니까. 낙산사는 복원(復元)되되보다 중흥(重興)되어야 합니다.

낙산사를 새로 세웁시다. 저는 이즈음, 한편에 초현대식 건물이 관광명소이자 수행공간으로 있고, 그 한편에 폐허의 옛 절터가 공존하는 그림을 그려보는 즐거운 상상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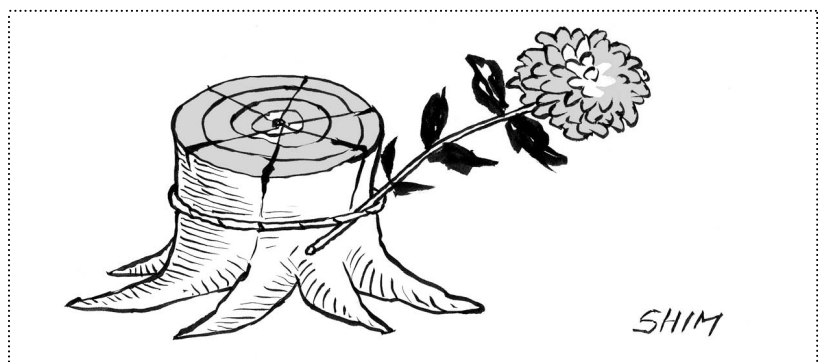
폐허 그대로 두고 새 가람 지으면 어떨까

전쟁 중에 새로 지은 것이고, 동종 또한 사실상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형태와 구조에 대한 엄밀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소리는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불교 지구적 복음

저는, 이 참에 낙산사의 가람을 초현대식으로 지으려면 하는 개인적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적절히 조화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징과 실용 두 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현대인들의 시선도 사로잡고, 그러면서도 수행도량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위용을 자랑하는 기념비적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는 터없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복원'이 아니라 '적응'이 관건입니다. 불교가 살아있는 전통으로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세계를 주시해야 하고, 중생들의 변화하는 욕구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 내면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불교와 오랜 세월이 걸쳐 깊은 인연을 '이미'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감격해 했습니다.

학생들은 다들 산사에서 하루쯤 새로운 삶을 경험하고 싶어했습니다. 적절한 산사를 찾아보겠다고 하자, 그들은 이런 주문을 보냈습니다. "화장실만 괜찮다면요." 그들은 우리의 오랜 전통인 푸세식에 질겁을 했습니다. 화장실 문화도 우리의 고유한 전통

입니다. 이렇게 '중생과 더불어'는 앞으로의 불교를 이끄는 새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대승의 근본정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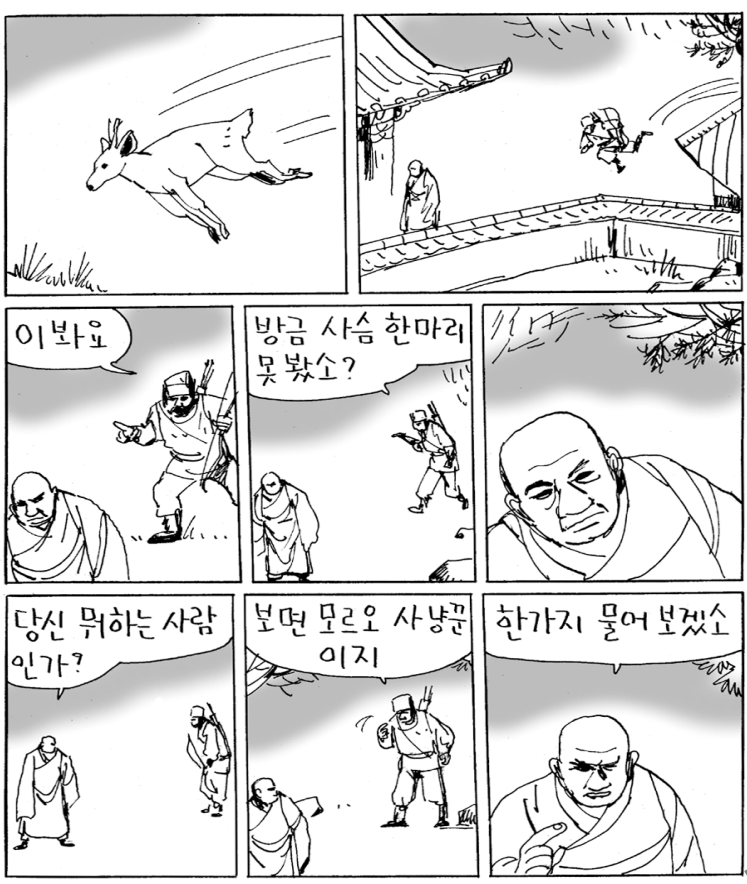
불도들이 날마다 읊는 삼귀의(三歸依) 또한 재가와 재사를 아우르는 '공동체'에 대한 회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참석했던 성태용 교수님은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라는 구절 자체를 법담하게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하십니다.

주장사 따라...

64 마조도일 선사의 화살



조태호



마조도일(709-788): 당대(唐代)스님. 사천성 한주 출신. 남악회향 문하에서 심인(心印)을 얻음. 석두회향과 더불어 선계의 쌍벽으로 불림. 저서로 <마조도일선사어록>이 있음.

무명의 실성(實性)은 무엇입니까?

무명의 실성(實性)이 불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명이 불성이므로 무명을 보면, 즉 견성한 것입니까? 견성한 분은 미혹한 사람을 위하여 알기 쉽게 한 말을 해주시던 고법했습니다. (개울)

답1: 무명이란 말과 불성이란 말들은 인간의 특성에 맞추어 분별해놓은 관념입니다. 이렇게 관념으로 나눈 것은 인간들이었다는 뜻이고, 범주적인 관점에서는 인간이 분별하기 이전이나 분별한 이후나 그냥 그대로 자연일 뿐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상생하는 지혜와 자비만을 무궁하게 펼쳐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 두 단어로 얘기하자면 지혜와 자비입니다. (하늘)

답2: '무명실성즉불성(無明實性即佛性)'의 뜻은 바로 언어와 논리에 집착치 말라는 소리입니다. 무명의 실성이 불성이라 하였으니 무명과 불성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든지 무명과 불성이 둘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즉 둘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알고 있는 비를 내려놓고 이에 더 이상 분별 집착치 않으면 그 민인 것입니다. 그걸 또 새로운 언어와 논리를 세워 굳이 나누려 한다면 쉬운 길을 두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답을 요구한다 하였는데 스스로 깨침이 깊으할 뿐 분별에는 정해진 답이라 할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했던 간에 보고 듣고 깨달아 알면 그만이며 모르면 스스로 더욱 추구할 할 뿐 누구에게 그렇게 요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그네)

답3: '무명실성즉불성'이란 무명과 불성이 둘 아니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둘 아니라고 하여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있나? '무명실성즉 불성'이란 무명실성이라는 것이 따로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 연기된 것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무명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니 이를 깨달아 따로 이에 집착하거나 매하여 스스로를 얽매는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부처의 지혜요 반야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실성이 불성임을 곧 보여 되면 견성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지요. (도레미)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16 indicating starting positions.

상식퍼즐

1. 문어과의 연체 동물로 8개의 다리를 가진 2. 불을 끄는데 쓰는 기구 3. 국악기의 하나로 황죽 또는 쌍골죽으로 만든 횡적 4. 공리가 열연한 영화로 대부호의 몰락 과정을 그림 5. 쓸데없는 군일을 뺌의 발에 빗댄 말 6. 아홉 번 죽을 고비를 넘김 7. 서방정토와 같은 뜻으로 부처님의 나라를 일컫는 8. 가장 가벼운 원소 9. 태양계의 3번째 행성

1. 3대 관음도량의 하나며 홍련암이 있는 사찰 2. 염소와 나뉠름의 결합체로 편맛을 내는 천연 광물성 식품 10. 성질이나 언행이 기이한 사람 11. 모든 괴로움과 즐거움을 함께함 12. 네트를 사이에 두고 두 팀이 머리와 발을 사용해 상대 팀으로 넘겨 승부를 겨루는 구기 종목 13.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지혜제일'로 꼽힘 14. 도리천에 있다는 감미로운 영액 15. 고려 말기와 조선 초기에 덕행이 높은 스님에게 주던 최고의 승직 16. 박경리의 대하소설로 '서희'가 주인공으로 나온